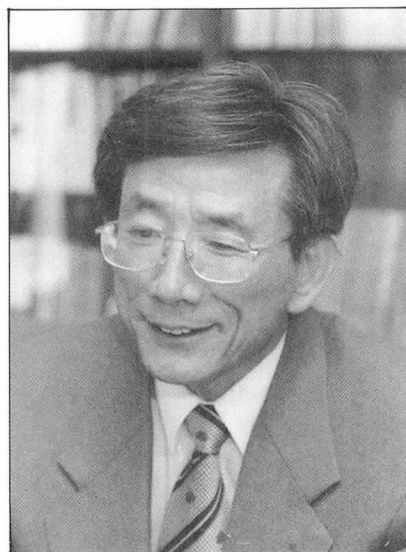


‘온생명’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제14회 과학기술도서상 번역상 수상한 장희익 교수

장교수는 공동운명을 살아가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생명을 ‘온생명’이라 부른다. 이 ‘온생명’의 건강한 회복이야말로 현대과학의 과제이자 철학적 문제라고 한다.



장희익 교수.

특히 정확한 번역이 요청되는 과학서에서 오역을 발견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다는 장희익(57, 서울대 물리학과)교수가 지난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선정한 제14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번역상을 수상했다.

“혼자서 번역한 것도 아닌데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의외”라고 소감을 밝히는 장교수는 그러나 이번 상이 번역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 반갑다.

《우주와 생명》(김영사)이 수상도서. 이 책은 미국의 과학월간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가 150주년 특집호로 특별 기획해 출간한 《LIFE IN THE UNIVERSE》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스티븐 와인버그, 칼 세이건, 마빈 민스키, 스티븐 제이 굴드 등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세계적인 과학 석학 14인이 이 책의 저자들.

우주의 탄생부터 생명의 미래까지 최신 과학의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도 흥미롭게 기술해 일반 교양인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장교수는 이 책을 평한다.

전쟁 후 혼란한 사회 분위기 탓에 ‘선명하고 명쾌한 과학의 세계’에 마음이 끌려 자연과학을 선택하게 됐다는 장교수의 전공은 고체물리학이다. 20여년 전, 당시는 크게 주목을 끌지 못하던 ‘반도체’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아 시대를 앞서가는 연구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로 장교수는 연구실에서 자신의 전공에만 몰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과학철학, 과학문화쪽으로 자신의 관심을 확장한다.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뿌리에 나서 공동운명을 살아가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생명입니다. 나는 이것을 ‘온생명’이라 부르는데, 현재는 이

‘온생명’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장교수는 ‘온생명’의 건강한 회복이야말로 현대과학의 과제이지만 이는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문화 전체와 연관된 문제라고 역설한다. 장교수가 창안한 ‘온생명’은 존재의 인식과 관련된 철학적 개념인 동시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문화적 성찰, 결국 그의 학문적 관심을 집약하는 용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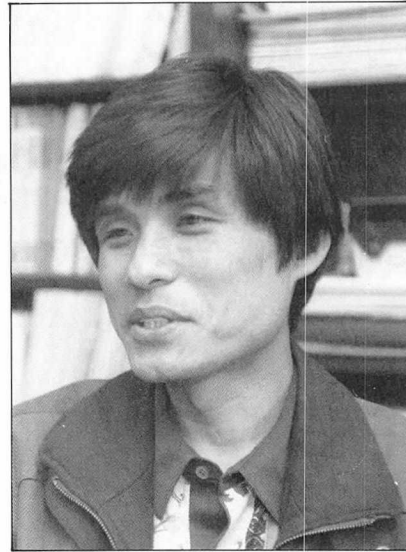
‘온생명’ 철학을 정립하는 일과 ‘철학자를 위한 물리학’이라는 틀로 지성인을 위한 수준 높은 물리학 책을 한 권 펴내는 일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얼마전 일산으로 이사, 하루에 적어도 3시간은 지하철을 타는데 이것이 장교수의 색다른 재미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독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물리학과 모혜정 교수가 부인이다. —박남정 기자

인류미래를 위한 과학지식

제7회 과학저술인협회 번역상 수상한 이필렬 교수

무기화학을 전공한 후 전공분야에만 멈추지 않고 과학사를 연구하며 교양과학의 술한 번역서를 낸 이교수의 화두는 인류미래를 위한 과학의 문제다.



이필렬 교수.

“전문가란 해당 분야에서 저절러질 수 있는 몇가지 커다란 오류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양자역학의 현대과학을 수립한 대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의 말이다.

지난 4월30일 제7회 한국과학저술인협회(회장 송상용)의 번역상을 받은 이필렬 교수(39, 한국방송통신대)는 하이젠베르크가 말한 바로 그런 의미의 전문가다.

무기화학을 전공하고 독일 베를린대학에서 <라탄족 아미드의 합성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이필렬 교수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만 멈추지 않고 다시 런던대에서 과학사를 연구하며 교양과학 분야의 술한 저서를 번역해 낸 것은 전문가로서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피할 줄 아는 지혜를 지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필렬 교수가 지금까지 번역한 과학서들은 다소 광범하다. 나카야마 시게루의 《과학과 사회의 현대사》(폴빛) 찰스 길리스피의 《과학의 역사》(종로서적) 프리드리히 클렘의 《기술의 역사》(미래사) 등 과학사 관련서가 많다. <과학기술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등의 논문과 지난해 공동저술로 펴낸 《교양환경론》에서 관심의 깊이를 보여온 환경관련서로 로버트 옹크의 《원자력제국》(뜨님)도 있다.

86년 분석화학의 시험준비중 초조함을 잊기 위해 자전적 에세이 《부분과 전체》를 밤새워 읽기 시작하면서 하이젠베르크의 삶과 철학에 빠지기 시작해 그의 저술을 옮긴 책도 많다. 《하이젠베르크 전기와 그의 물리학적 철학에세이》(현실과 질서)(뜨님) 《현대물리학의 자연상》(이론과 실천)이 그것.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이론과 실천)의 번역에 남다른 애정을 기울인 것에서도 경계를 넘나들며 지식의

전체성을 바라보려는 이교수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교수는 말을 아끼지만 독일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의 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터다. 통일된 용어사전도 변변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독일어의 경우 <두덴 DUDEN> 사전을 애용한다. 처음에는 정확한 번역에 힘을 쏟았는데 갈수록 일반인들도 잘 읽힐 수 있는 유연한 문장에 대한 욕구에 더 끌리곤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원문의 뜻을 정확히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대학에 자리를 잡고 나니 사실 번역에 쏟을 여력이 없더군요. 번역을 학문 업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묵은 주장들이 새삼 생각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현실에서 좋은 번역물이 나오려면 전문 과학저널 리스트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교수 역시 80년대 대학을 다니며 사회 현실에 무감할 수 없었다. 서울대 화학과를 중퇴하고 88년 독일 베를린대에서야 공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지금은 과학사학회 회장과 <창비문화>의 자문위원을 맡으며 여전히 학문과 현실의 접목에 부지런함을 보인다. 인류미래를 위한 과학과 기술의 문제를 화두로 삼고 있는 이교수가 내년 초쯤 내놓을 또한권의 번역서는 에른스트 울리히 폰 바이체커의 《지구정치학》이다. —김지원 기자